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44 “우리도 편다”



광주시 체육회 임직원들이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에서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와 제89회 전국체전 상위 입상 결의를 다지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3년 U대회 광주 유치 기원”

■ 광주시 체육회

“시민들과 호흡하면서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위한 각오를 다지며 달려왔습니다.”

2013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오는 10월 여수일원에서 열리는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준비에 여념이 없는 광주시체육회 직원들은 3·1절 전국마라톤에 출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결의를 다지겠다는 각오다.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가 되면 광주에서 열리는 첫 국제대회로 경제적인 효과는 물론 시민건강을 위한 체육인프라가 갖춰지는 등 효과가 무궁무진하다.

따라서 광주시체육회는 광주시와 함께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난해 광주체전을 역대 최고의 성공체전으로 치른 여세를 몰아 중상위권 확보를 위해 선수단의 사기진작과 지원에 하투 해가 짧을 지경이다.

“올 전남체전 중상위권 목표 전력 질주”

전학철(58)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은 “지난해 시민들의 협조로 전국체전 사상 가장 성공적인 체전을 치를 수 있었다”며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광주에서 처음 맞는 국제적인 행사로 광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는 전 직원이 참가해 이러한 결의를 다지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나무석(74)삼일부회장은 주말 골프 18홀을 카트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다녀 동반자들을 놀라게 할 정도의 체력을 자랑하고 있다.

뜰뜰이 등산도 즐기는 나 부회장을 보고 시체육회 직원들 젊은이 못지 않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다.

핸드볼 경기인 출신인 전 처장은 평소 광주시 동구 운동동 집 뒤의 중심사 코스를 오르내리며 체력을 다지고 있어 5km정도는 가볍게 뛸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전직원 스포츠 마니아 완주 자신

박재현(51) 경기팀장과 문부홍(41) 기획총무팀장은 육상선수 출신으로 5km달리기는 어물리지 않는다는 평을 들을 정도.

박 팀장은 염주체육공원 조경을 통해 꾸준히 체력단련을 하고 있고, 문 총무팀장도 점심시간에 짬을 내 염주체육공원에서 꾸준히 러닝을 해와 체력을 자신하고 있다.

역도선수 출신 노치일(42) 팀장은 생활체육테니스회원으로서 상위 랭커에 오를 정도의 실력과 풀코스라도 뛸 기세다.

경기부 흥은주(여·37)·박현덕(여·29), 기획총무팀 박희영(여·33), 서경남(여·27)씨는 이번 대회에서 여성파워를 자신하고 있다.

흥은주 씨는 요가와 스트레칭으로 건강을 지켜왔고, 박현덕 씨는 스쿼시와 웨이트트레이닝으로 몸매를 가꾸어 이번대회에서 멋진S라인을 선보이겠다고 버리고 있다.

스쿼시 회원으로 활동하는 박희영 씨도 이에 질세라 5km정도 가볍게 뛸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서경남 씨도 이번대회에 처음 출전하지만 수영으로 다져온 체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최고 용병’ 뜨거운 3파전



삼성화재 안젤코

득점 1위...오픈·후위공격 2위



대한항공 보비

득점 2위-안젤코 바짝 추격



LIG 팔라스카

귀국 이틀만에 ‘트리플 크라운’

프로배구 LIG손해보험의 ‘특급 용병’ 기예르모 팔라스카(31)가 팀에 복귀하자마자 트리플 크라운을 작성하면서 각 팀 외국인 선수 사이의 경쟁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이번 시즌 남자 프로배구에서는 삼성화재의 안젤코 추크, 대한항공의 보비, LIG의 팔라스카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경쟁을 벌이며 ‘최고 용병’ 자리를 놓고 다툼을 벌여 왔다.

이번 시즌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인 외국인 선수는 선두를 독주하고 있는 삼성화재의 주포 안젤코.

득점 부문 1위(280점), 오픈공격 성공률 2위(52.5%), 서브 2위(세트당 0.40개), 후위공격 성공률 2위(54.5%)에 오르며 지난해 레안드로 못지 않은 화려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우수철처럼 탄력있는 점프와 기복이 없는

성실함, 끈끈하기로 소문난 삼성화재의 조직력에도 금세 녹아든 적응력이 장점이다.

팔라스카는 지난해 한국배구연맹(KOVO)컵 마산대회에서 파워넘치는 스파이크를 앞세워 ‘최고 용병’ 찬사를 들었으나 스페인 국가대표로 2008 베이징올림픽 예선전에 참가하기 위해 20일 가람 자리를 비운 공백이 크다.

지난해 12월26일 출국해 대회를 마치고 지난 15일 귀국한 팔라스카가 이 기간 벌어진 5경기를 결장한 사이 소속팀인 LIG손해보험은 프로팀과 맞대결한 3경기에서 한 세트도 따내지 못하는 무력함을 보였다.

그러나 팔라스카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충분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출전한 16일 대한항공과의 경기에서 시즌 4번째 ‘트리플 크라운(백어택·블로킹·서브득점 각 3개 이

상)’을 작성하는 괴력을 펼쳐 남은 시즌 대 활약을 예고했다.

이번 시즌 외국인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해 한국무대를 경험했던 대한항공의 보비는 초반 부진을 딛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량을 되찾아가고 있다.

1라운드에서 무릎 부상의 영향으로 지난해 보여줬던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반쪽 용병’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았던 보비는 그러나 리그가 진행될수록 정상 컨디션을 찾아가고 있다.

타점 높은 스파이크에 노련미까지 더해져 득점 사냥을 시작한 보비는 득점 부문에서 276점으로 1위 안젤코를 4점 차로 추격하고 공격종합 성공률도 51.0%로 3위를 달리는 등 기록 전 부문에 걸쳐 안젤코를 바짝 쫓고 있다.

KIA 손지환-삼성 유용목 맞바꾼다

KIA 타이거즈의 손지환(29·우투우타)과 삼성 라이온즈의 유용목(21·)이 유니폼을 맞바꾸게 됐다.

손지환은 지난 2004년 LG에서 KIA로 트레이드 돼 4시즌을 뛰었고, 지난해에는 102경기에 출전, 0.217의 타율과 6홈런·33타점을 기록했다.

2005년 2차 4번으로 삼성에 입단한 유용목은 지난해 4월 처음으로 1군에 데뷔해 5경기에 출장했다. 발이 빠르고 유격수 3루수를 주로 맡아왔다.

이번 1:1 트레이드는 내야 백업 요원 강화를 위한 조병현 감독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두 선수는 KIA와 삼성이 꿈에서



손지환

유용목

전지훈련을 하고 있어 곧바로 바뀐 팀 캠프에 합류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감독 성명 “현행 8개 구단 유지해야”

프로야구 8개구단 감독들은 17일 현대야구단 해체 문제와 관련, 공동 성명서를 내고 8개 구단 유지를 역설했다.

이들은 ‘한국프로야구 감독 및 코칭스태프 일동’ 명의로 발표한 호소문에서 “한국프로야구 발전을 위한 선결 요건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8개 구단의 유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감독 일동은 “현대 유니콘스의 존폐 여부는 더 이상 한 팀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

이라며 “8개 구단이 7개 구단으로 쪼개지고 또다시 6개 구단으로 잘려나간다면 더 이상 프로야구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은 공명불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는 선수협이 발표한 호소문을 지지하고 8개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힘을 보탬 것”이라며 “한국야구위원회와 각 구단 사장들도 대응적 차원에서 현대유니콘스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를 부탁한다”며 고 호소했다.

18일(금)

▲2008 PGA 밥 호프 크라이슬러 클래식 2R(05:00·SBS골프·SBS스포츠)

▲07/08 여자프로농구(삼성생명·신세계)(16:50·SBS스포츠)

▲07/08 프로농구(LG·동부)(18:50·SBS스포츠)(모비스·오리온스)(18:50·XSPORTS)

▲2008 여자골프 월드컵 첫째날(19:00·SBS골프)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529-8111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롭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태환(남·48), 최영아(여·31))

개강 매월 초 (주,야) 기본서 이론 2개월 완성. “첫진도 시작반”

합격을 1위 전국수석합격. 새롭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529-8111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합격률 1위

개강 2월 1일. 주택관리사 첫진도 시작반 2개월 완성

광주고시학원. 본원 ☎ 227-8003, 첨단점 ☎ 971-0002

농성동 삼익아파트 건너편 - 서경빌딩임대. 368-8889 (대)